



# 제2탄생 유기견과의 바람다운 동행



**여운 창**  
경기도청 북부청사 동물방역위생과  
(도우미견나눔센터)수의사무관  
yuc1961@gg.go.kr

## 1. 개는 사람이 아니다

개의 눈높이는 아주 낮다. 인간은 두 발로 걷고 개는 네 발로 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개와 인간이 수직적 관계임을 보여준다. 개는 인간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를 인간의 눈높이로 안아 올리거나 인간이 개의 눈높이로 낮출 때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개를 무릎 위에 앉히고 눈을 맞추면서 개의 상태를 살피고 감정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영원히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다닐 수는 없다.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의 기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간혹 사람들은 수직적 관계가 권위적이라고 여기거나 수평적 관계가 개에게 이롭다고 착각한다. 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 사랑일까?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개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와 관계를 맺게 될 때 '내가 너의 주인'임을 각인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소위 복종훈련이다. 앉아, 옆드려, 기다려 등으로 대표되는 복종훈련은 개의 재능을

살리거나 재미를 위해 하는 훈련이 아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고도 아주 중요한 훈련인 것이다.

## 2. 개는 인간의 사랑을 원한다

개에게 복종훈련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먹이, 그리고 인간의 칭찬, 즉 사랑이다. 처음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 인간에게 복종한다. 앉아! 옆드려! 기다려!라는 신호에 맞추어 먹이를 주는 반복된 습관이 개를 앉고, 옆드리고, 기다리게 만든다. 일종의 조건반사와 같다. 그러나 복종 행위가 끝나면 반드시 칭찬을 해준다. 이 칭찬에 길들여진 개는 결국 기본 욕구마저 절제하게 된다. 밥그릇 앞에서 침을 푹푹 흘리면서도 인간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의 동물 중에서 다른 종의 사랑을 이토록 원하는 동물이 또 있는가? 개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동물은 세상에 없다.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꼬리를 치고 핥고 주변을 맴도는 모든 행위는 인간의 사랑을 갈구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길들여진 개는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동물이다.



### 3. 개는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고 인간에게 복종하는 이 순수한 영혼은 개인주의와 소통 부재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소일거리를 제공하며 산책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족과 이웃간의 소통을 유도하는 가교역할도 하며, 무엇보다 사랑을 확인시켜 준다.

문제는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가볍게 버린다는 점이다.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과 준비 없는 동거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할 수 없듯이 개와 함께 지내는 것도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갖고 싶다고 조르는 아이 때문에, 충무로를 건다가 술집에, 혹은 애인을 놀라게 할 깜짝 이벤트 선물로 그렇게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개는 생명이다

그런데 쓰다 버린 물건처럼 유기된 개가 한 해에 전국 평균 4만4천마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개들은 각종 질병을 옮기거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신고 포획된 개는 유기동물보호시설로 옮겨지지만, '보호'라는 말은 단 10일만 유효할 뿐, 그 기간에 주인이 찾아 가지 않거나 분양되지 못한 개는 안락사 대상이 되는 것이 법의 현실이다. 그렇게 한 달에 전국 평균 1천3백마리의 개가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단지 인간을 사랑했을 뿐인데 왜 버려지고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국가의 모든 정책도 가장 기본적인 '생명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에서 201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동물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안락사 대상 유기견

중 자질이 우수한 대상을 선발하여 도우미견(장애인보조견)과 기본훈련과정 이상을 마친 반려견으로 재탄생시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무상분양하는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였다. 경기도는 유기견 재분양, 입양전 기본교육과 사후관리, 체험학습 및 교육 등을 통해 유기견을 발생을 줄임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예방하고, 각종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된 반려견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고령화 및 1인 가정 증가, 사람과의 소통부재, 청소년 게임중독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웃음과 희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 5. 사랑이 희망이다

지난 2013년 11월 12일 있었던 제1회 분양식은 그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유기동물보호시설에서 데려와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훈련받은 총 9마리의 도우미견이 장애인, 독거노인, 심리적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웃의 품에 안겨졌다. 서운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한 것이 딸자식 시집보내는 아버 마음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다.

한 달 후 사후관리를 위해 분양된 집들을 방문하였다. 도우미견들이 그곳에서 사랑받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들이 분양된 곳마다 대화와 웃음이 넘치고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했음을 전해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사랑이 희망이다.

길은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꼭 사람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개와 함께 걸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수직관계도 수평관계도 아니다. 개와 나란히 걷는 삶, 그래서 반려견이다. 내 앞에 놓인 길이 외롭거나 두렵다고 느낀다면 반려견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도우미견나눔센터를 쳐보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여정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